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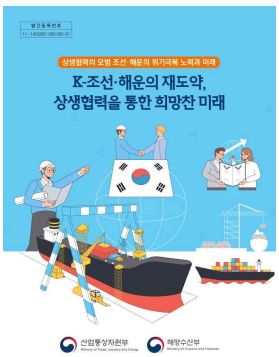
배포일시	2022. 1. 4.(화)	담당부서	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
담당과장	권혜진 과장(044-203-4330) 허만욱 과장(044-200-5710)	담 당 자	여수항 사무관(044-203-4332) 고규환 서기관(044-200-5715)

「K-조선 · 해운의 재도약,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」 백서 발간

- 조선 ·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의 과정을 기록 -

- 조선 · 해운의 '상생 모범사례'로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와 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최근 **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**인 **조선·해운업**의 **위기 극복 노력**과 **상생협력의 과정**을 담은 **「K-조선·해운의 재도약,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」** 백서(이하 조선·해운 상생 백서)를 발간하였다.



○ 백서는 **'16년 글로벌 수주절벽**과 **'17년 한진해운 파산** 등 우리 **조선·해운산업이 직면**했던 **위기**와 **그 원인을 진단**하고, 이를 극복하기 위한 **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**과 함께 **최근 성과**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, **조선·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.**

○ 특히, **선박을 매개**로 **전·후방산업**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**상생협력**이 최근 **성과의 핵심**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,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.

□ 조선·해운 상생 백서는 **산업이해를 돕는 프롤로그**와 함께, **위기 극복의 과정과 그 성과**를 담은 파트 1, 2, 3으로 구성된다.

○ [**프롤로그**] **조선·해운산업**의 **현재**를 보여주는 **통계**와 **주요 특성 및 생태계 설명**으로, 백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.

○ [**파트1**] "**산업 붕괴 위기,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맞서다**"에서는 조선·해운산업이 직면했던 **위기의 원인과 양상**, 이에 대응하기 위해 **정부와 민간, 양 업계**가 함께 추진한 **주요 정책내용**을 설명한다.

① 조선 : (위기) 선박 수주절벽('16), 해양플랜트 손실('14~) → (양상) 가동률 하락, 고용축소 등 산업위축 → (정책) 산업·고용위기지역 지정('18), 발전전략·활력제고방안('18) 및 보완대책('19) 수립 등

② 해운 : (위기) 극심한 원가경쟁 및 선박투자 실패로 한진해운 파산('17) → (양상) 선복량 감소, 운임 상승 등 수출입 물류경쟁력 훼손 → (정책) 해운재건 5개년계획 수립,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('18) 등

③ 상생협력 : ('16) 공공선박(63척 이상) 조기발주, 조선·해운 협력네트워크 강화 → ('18) 국내 해운사의 초대형컨테이너선 20척 국내발주 → ('21) 글로벌 선박시장 친환경·스마트화 공동대응

○ [**파트2**] "**조선-해운산업의 부활, 재도약 성과**"에서는 수주량, 매출액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**최근 양 산업의 재도약 성과**를 정리하고, 그간의 **정책적 노력** 및 **조선·해운업계 간 상생협력**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**업계 및 기관의 인터뷰**를 통해 **생생하게 전달**하였다.

① 조선 : '18~'19년 세계 시장점유율(수주량 기준) 1위 유지, '21.11월 누적수주량 기준 고부가가치 선박(65%) 및 LNG추진선박(63%) 시장점유율 압도적인 세계 1위 달성 등

② 해운 :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(105만TEU) 및 매출액(40조원, 예상) 회복('21), 주요 수출노선의 국적선사 점유율 회복(미주 8.4%, 유럽 7.2%, '21), 원양선사 흑자전환('20)

③ 상생협력 : 국내 해운사의 신조선박 국내 발주 약 82%(금액기준, '18~'21.10), 친환경선박 전환에 국내해운사·조선사 연계(H-line LNG연료추진 대형 벌크선 4척 현대삼호重에 발주 등) 등

○ [**파트3**] "**K-조선·해운, 세계를 선도하다**"에서는 조선·해운산업이 마주한 **산업 패러다임의 변화**상을 **친환경·스마트화 중심으로 설명**하고, **친환경·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,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** 등 미래 **조선·해운시장을 선도**하기 위한 **상생·발전전략**을 **제시**한다.

① 친환경化 : 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조선·해운산업이 공동 대응하여 온실가스 70% 감축 기술개발, 친환경 선박 기술 선박 건조 및 운용,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을 추진

② 스마트化 : IMO level 3 수준의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, 자동화항만 구축(광양항, ~'26) 등 물류 전 구간(선박-항만-육상)에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등

○ [**에필로그**] “**경기변동,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**?”는 호·불황을 반복하는 조선·해운산업의 **구조적 특성을 극복**하고, **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**해 나가기 위한 **산업 안전판 마련** 등 **정책과제를 소개**한다.

□ **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“**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위상**을 되찾은 것은 **우리 조선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**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”라고 하면서, “**조선·해운의 상생**으로 **위기를 극복**함과 동시에 **산업도 재건**하였다”라고 평가하였다.

○ 이어서 **조선·해운산업**은 이번 위기의 **동반 극복을 계기**로 **상생·협력이 자리매김**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, **정부**도 **세계 일등 조선·해운 강국을 향한 항해**에 **든든한 동반자**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.

□ **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**도 “우리나라가 **세계 8위 무역 강**국으**로 도약**한 데에는 다시 살아난 **해운산업이 크게 이바지**했다.”라며, “**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**과 업계의 **상생 노력**이 맞물리면서 우리 해운·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었다.“라고 평가하였다.

○ 더불어, **해운·조선산업**은 수출입 비중이 높은 **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**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, “앞으로 **친환경·디지털 전환을 가속화**하여 불황에도 **흔들림 없는 산업 생태계**를 만들어 가겠다.” 라는 각오를 밝혔다.

□ 한편, 백서는 **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, 지자체, 대학교 등 교육기관, 유관 협회,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**될 예정이며,

○ **1.5일(수)부터 산업부 누리집**(www.motie.go.kr)**과 해수부 누리집**(www.mof.go.kr)**의 “정책·정보-간행물”**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**전문을 내려 받아 열람**할 수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여수항 사무관(☎ 044-203-4332),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고규환 서기관(044-200-57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